

뉴 멕시코 한인회 + 상공회의소
한인 대 화합을 위한 공동출범식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한인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권리보호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한인 동포사회와 한미 양국의 상호선린 교류발전에 이바지 하며, 한인 동포 단체간의 교민 봉사활동 및 한인 위상 제고의 기반을 확충코자 함이다.



2013년 4월 21일(일) 오후 4시, 한인회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유진철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신연성 총영사 및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정형회장의 축하 메시지들이 답지하여 대독 되었다. 초청 및 한인 주요 인사 등 100명 내외가 참석한 이 행사는 미주 전역의 한인동포사회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지 못할 한인회와 상공회의소의 공동출범으로 한인 대 화합을 이끈 감명적인 화합의 장이 되었다.

부활절 연합예배

지난 3월 31일 한인회관에서 교역자 연합회 주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새벽예배가 열렸다. 뉴멕시코 교회들의 연합과 한인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인회 아래 처음으로 한인회관에서 거행된 부활절 연합예배였다. 예배 후에는 한인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재를 나눴다.



뉴 멕시코 한인회 + 상공회의소
한인 대 화합을 위한 공동 선언문

(총람) 뉴 멕시코 주의 한인을 위하여 상호간 친목, 협조, 정보교환 및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양 정부 및 주류사회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한미양국의 상호선린 교류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교류 및 화합단결) 본 협의체는 뉴멕시코 한인사회의 구심체로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요정보를 상호공유하고, 한인의 권리신장과 화합단결을 통해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한다.

2. (행사 및 사업 공동발전 추진) 본 협의체는 한미 민간차원의 우호사절로서 양국 문화, 경제 및 인적교류의 중심역할을 하며, 뉴멕시코 한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각종행사와 사업을 공동 발전시켜 나간다.

3. (한인 도우미 봉사센타 공동운영) 본 협의체는 주미 한국대사관 및 관할지 총영사관과, 한인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함께 연구개발하며, 한인 동포들의 법률, 경제, 이민, 의료, 교육 등에 관한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한인 도우미 봉사센타를 공동 운영한다.

4. (단체 공동 자문위원회 구성) 본 협의체는 한인 사회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며, 한인 지역사회의 원로, 전현직 회장단,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한인단체 공동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5. 이에 본 협의체는 한인 대 화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뉴멕시코 한인동포사회 앞에 준엄히 낭독, 발표하고 맹세한다.

2013년 4월 21일

뉴 멕시코 한인회 회장 조 규 자

뉴 멕시코 상공회의소 회장 문 상 귀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제2회 장학기금모음 골프대회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NM

2nd Annual Scholarship Golf Tournament

Come help support student scholarship funds
at the 2nd Annual KACCNM Golf Tournament!

Date: Sunday, April 28, 2013, 1 PM

Come early and enjoy free range balls.

Location: Paa-Ko Ridge Golf Club

1 Clubhouse Drive, Sandia Park, NM
505-281-6000

Entry Fee: \$80 per player
(includes LUNCH & DINNER)

Format: 2-Men Scramble, New Perio Method

Prizes: Champion: \$300

1st Place: \$200

2nd Place: \$100

Longest Drive: Prize

Closest to the Pin: Prize

Dinner and Award Ceremony will be held at:

Lin's Grand Buffet (Banquet Room)

4710 Montgomery Blvd. NE (W of San Mateo)
Albuquerque, NM 87109 (505) 888-5033

For registration or sponsorship, please contact:

Sam Mun 505-991-8888 / Okmi Jun 505-991-2160

or email to kaccnm@hotmail.com

무한도전!! 그랜드 캐년 횡단 (Rim to Rim, 24 mile Hiking)

최원길 박사

Grand Canyon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의 거대함과 신비로움에 앞도되어, “신의 땅”, “자연의 최고 예술품”, “죽기 전에 꼭 가야 할곳” 등으로 극치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그랜드캐년이 있는 아리조나 바로 옆의 주(State)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비로운 감동이 식어져서 그랜드 캐년을 “그저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랜드캐년에 가서 주로 남쪽벼랑(South Rim) 꼭대기에서 계곡 아래만 내려다보고 또한 건너편 북쪽 벼랑(North Rim)을 바라보고 돌아온다. 소수의 사람들은 거리가 멀지만 북쪽벼랑(North Rim)으로 가서 계곡 아래를 보고 건너편 남쪽벼랑(South Rim)을 보고 돌아온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랜드캐년 관광이다. 사실 그랜드캐년 안에 숨겨진 자연의 신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그랜드캐



그림 13



그림 14
년을 내려다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저 밑에 있는 Colorado 강에 내려가면 어떨까? 아래 있는 계곡들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번 내려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두가 나질 않았을 것이다.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다는 사람들 가운데 계곡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평생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 횡단”인 것이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는 단순히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림 15

남쪽 벼랑(South Rim)에서 내려가서 위에서는 볼 수 없는 계곡 사이로 걸어서 북쪽 벼랑(North Rim)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림2) Rim to Rim을 Hiking하는 것이다. 총 걷는 거리는 24마일이다. 걷다보면 깊은 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자신을 깨달을 수도 있으며 끝도 없는 것처럼 이어지는 거친 길을 헤쳐나가면서 당당한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 쪽 벼랑 위에 도착 했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 냈다는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도 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South Rim Village 서쪽 끝에 있는 Bright Angels Lodge에서(elevation: 6800 ft)에서 Colorado River (2500ft)까지 11 마일이고 Colorado River에서 North Rim (8200ft)까지는 13마일이니 총거리는 24 마일이며 각각 4300ft 와 5700ft 높이를 오르고 내려가야 한다. 보통 산행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으로는 8-10시간을 잡으면 아침 6시에 출발 하면 늦어도 오후 4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right Angels Lodge 서쪽에 있는 South Rim Trail Head에서 아침 6시쯤 되면 동이 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림3) 호기심에 아무 준비 없이 내려가는 사람들, 강가까지 갔다 돌아오려는 사람들, Rim to Rim을 하려는 사람들로 길이 비좁을 정도다.



그림 17

3마일 정도 가면 Indian Garden picture 2) 이라는 푸른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 나오고 camp ground도 보인다. (그림4) 이곳을 지나면서 좀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강가에 까지 내려가는 하이킹족들과 드문 드문 같이 동행 한다. 내려가는 길이라 별로 힘들이지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않게 6마일을 갈 수 있고 가면서 간간히 보이는 콜로라도 강물에 매료되어 강까지 남은 5마일도 쉽게 내려간다. 다리를 건너며 줄기차게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기도 하며, 운이 좋으면, 강물 따라 래프팅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림5) 큰 소리로 자기의 하루 여정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기도 한다. 다리를 건너면 곧 Bright Angels Campground가 보이며 거기서 500 야드 더 가면 Phantom Ranch가 나온다. 여기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cabin style의 lodge이며 예약은 2년 전에 해도 될까말까라고 한다.(그림6) 음식을 파는 곳이 있는데(그림7) 비싸고 그것도 정식 meal은 ranch에 묵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그림8) 그래도 여기서 간단한 식품은 살 수 있다. 여기서부터 Bright Angels Creek을 따라 North Rim으로 올라가는 길(trail)은 때로는 가파른 절벽이 어루어진 협곡 사이를 시원하게 (그림9)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다. 중간지점인 12마일(그림10) 지점을 전후해서 반대로 가는 등산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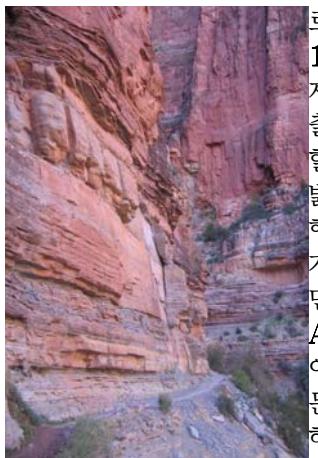


그림 22

들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North Rim을 떠난 사람들이다. 비교적 완만하게 Cottonwood Campground까지 가면 거기에는 식수가 있고 쉬는 곳이 있다.

거기서부터 North Rim까지 남은 6마일은 4000ft의(그림11) Gain을 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넘어 야할 고비인 동시에 이날 하이킹 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의 계곡을 지나는 곳이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땅만 보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진기를 꺼내들고 가끔 좌우

4.....



로 또 아래위로 둘러보며(그림 12) 셔터를 눌러대야 한다. 이 지역을 해가 있을 때 지나도록 출발 시간과 산행 속도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속적인 산행을 할 때 뇌세포 (Neuron) 가 생성 된다 하니 이쯤하고 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Alzheimer 증세도 줄어 들 것이다.(그림13, 14, 15)
문제는 이번 여행이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Coming

그림 23



그림 24



그림 26

down is option, but going up is mandatory. 보통 산행과는 달라서 중간에 포기 하고 돌아 갈 수가 없으며, 먼 길을 걸으며 지친 상태에서 3000 ft 혹은 4000 ft 를 걸어서 올라 가야하는 체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정기적으로 산행을 즐기며 Sandia 산에 있는 La Luz Trail (round-15마일, gain-4000ft)을 6시간에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사람다면 이번 Rim to Rim을 할



그림 27

수 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5월 중에 모여서 La Luz Trail에서 3번 정도 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번 GCR2R (Grand Canyon Rim to Rim) 팀은 campground 예약의 제한으로 6월 5일부터 6월 8일로 정했으며 참가인원은 12명으로 제한되며 6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South Rim에서 1박 후 6월 6일 아침출발, 다른 팀은 North Rim에서 1박 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발하여 12 마일 중간 만나는 지점에서 점심을 나눈 후 자동차 key를 교환하고 각자 자기 길을 향해 떠난다.



North Rim에서 남쪽 Rim을 보는 경치는 그랜드캐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North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

Rim에서 Cape Royal Rd를 따라 약 15마일 정도 계곡을 향해 가면 Window Rock(그림16)이라는 명소가 나온다. 여기서 보는 계곡의 경치는 절경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보려고 North Rim을 찾아오기도 한다.(그림17) 사진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전문 사진작가들은 이곳에서 진을 치고 아침 낮 저녁의 햇빛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를 사진에 담기도 한다. 이번 도전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가보게 될 장소이기도 하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늦어도4월 말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31

최 원길 HP: (858) 248-1704
Email: w.gil.choi@gmail.com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김준호 장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민섭 작사 및 작곡)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있다. 우리 권사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왼쪽 새끼발가락이 으스러져서 큰 고역을 치르게 되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밖에 알바커키 안에 있는 친구 분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이민섭씨의 가사가 참말로 꼭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가사는 계속해서 말한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이귀한 교제는 하나님 태초로부터 보여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

나는 만남을 통해 여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뜨끈뜨끈한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집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권사님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고통을 치르시는 게 아니세요?! 맞는 말이다. 그래서 네 번째 사고가 나기 전에 단층집으로 이사해야 되겠어요 했다. 지난 35년 동안 이집에서 살면서 많은 추억을 담은 집을 팔고 단층집으로 이사 해야겠다고 결정 했을 때 무언가 좀 서운하기도 하다마는 사고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애들도 우리의 생각을 알렸더니 두 말없이 찬성하는 것이다. 서운한 것 들 몇 가지가 있다. 공들여 길러온 뒷마당의 과일나무들(Bing cherry trees, persimmon tree, date tree, sweet heart apricot tree), 많은 장미꽃들, 그 밖의 여러 꽃나무들, Sun room의 양난 꽃들(양난에 집착되어 있을 때는 무려 170 여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70 개밖에 없음), 30여 년 동안 upgrade 해온 home theater 등등이다. 어떤 분은 아예 우리 권사가 즐겨 먹었던 음식을 싸들고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입고 벗고 하기 쉬운 큰 바지를

선사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감자조림과 다른 반찬들까지 만들어 날라 주는 분, 자기의 솜씨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져 오는 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가끔 먹어야 된다고 하며 delivery 해 주시는 분, 삼계탕을 주시는 분, 또는 디온즈 펫자를 사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함께 나눈 분들, 이밖에도 더 있는데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것들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권사와 나의 고백이다. 어느 분이 시켜서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할까.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을 매일 매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권사는 말을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행복감에 잠겨 있다. 우리 둘은 가끔 다짐한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더 베풀어야 우리들이 받은 사랑을 보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우리권사를 간호하면서 또 한 가지 진리를 체험했다. 교회는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불 뜯는 사랑,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며 권사의 회복을 바라는 분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복종의 복이라고 생각 된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라고 그 가사는 계속한다.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짐을 느끼게 된다.

우리 권사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길이가 약 3.5 인치 넓이가 0.5 인치 정도 되는 titanium plate로 으스러진 뼈들을 똑바로 세우고 titanium screw 5개를 박아서 고정시켰다. 그리고 발목 근처에서 liquid bone 을 뽑아서 으스러진 근방에 뿌리고 Bone grow 를 빼르게 하는 stimulator 를 장착시켰다. 전극은 발등에 하나 발바닥에 하나를 부쳐서 24시간 전류를 통하게 했다. 수술 후의 통증은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는 포코세트라는 pain killer 를 처방해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었더니 몇 시간 후에 모두 토헤 버렸다. 그 다음날 또 약을 먹었더니 또 토헤하고 말았다. 우리는 당황했다.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6.....

하도 답답해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의 처방은 그것이 엄마에게는 너무 독해서 그러니까 치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주는 방법을 써 보라고 해서 애드릴 3개 와 맥시멈 스트랭스 타이라놀 한 개를 번갈아 네 시간마다 먹으라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It is working ! 구토도 없고 폐인도 없어지고 . 권사는 좀 살만하다고 했다. 두주가 지난 후에 다시 체크 업을 받으러 가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월체어도 안타고 워커도 안 쓰고 의사가 처방한 boot 와 지팡이를 쓰면서 갔다. 다시 X ray 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면서 의사은 좀 실망스러운 말을 해 주었다. 으스러졌던 부분이 아직도 뼈가 자라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권사는 “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렇게 느린 것이 아니에요 ? ” 의사의 대답은 20 대의 청년이라도 당신처럼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주일에는 우리 권사가 교회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했는데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의사은 움직이는 것을 되도록이면 자중 하라는 것이다. 언제 까지 자중해야 될까. May be next 2 weeks ?

한 가지 더 힘이 들었던 것은 수술한 직후였다. 우리 권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침실이 위층에 있기 때문에 위층에 충계를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충계에 앉아서 한 계단씩 옮기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쉽지가 않아서 Hospital bed를 급하게 렌트해서 아랫 층에 있는 family room에 마련하고 나는 air bed 를 사서 옆방에서 자면서 밤에 불으면 권사에게 가서 부축해서 월체어에 태워 아랫방 화장실로 데려 가곤 했다. 문제는 월체어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니면 홀웨이가 좁아서 그런지 빨리 갈수가 없었다. 오밤중에 약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출입해야 하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을 잣는지 꿈만 꾸었는지 몽롱해서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비 고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아멘 ! 아멘 !

이런 일 저런 일들 다 겪으며 지냈는데 한 가지 Bottle neck 은 식사 때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좀 부담스러웠다. 아침은 쉽게 준비했는데 조금 있다가 점심 먹어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저녁 먹어야 하고 설거지는 갈수록 싸이고 ----- .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진퇴양난 ? 이라고 하나 ? 독자 여러분, 사람은 피가 나기시작해서 감당 할 수가 있더라구요 .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야단인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아내가 하루 세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준비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완전히 spoiled man 이였어요. 그게 거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난리통에 새로 알아 낸 것들 많아요. 특히 부인에 대한 고마운 것들 말입니다. 아내들의 노고를 이글을 읽으며 깨닫기를 바란다. 한 가지 득이 된 것은 권사가 만들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다이어트를 하려고 평생? 을 보냈는데 좀처럼 안 빠지던 체중이 지난번과 이번에 12 파운드가 줄어졌어요. 이번 사고로 엄마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딸과 아들과 손자가 달려

왔다. 딸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엄마를 간호 하려고 와서 때마다 먹어야 되는 식사를 요것저것 준비해서 내가 덜 신경 쓰게 되었고 아들과 손자는 자기 Monster truck 를 몰고 와서 garage를 정리 하였다. 뭐가 있었길래 정리가 필요 했을까. 한 가지는 내가 CVI Laser 에서 25 년간 일하면서 개발하고 고객들과의 연락하던 서류들이며 catalog 들 등을 거라지 한쪽 벽에 책꽂이를 만들어서 줄줄이 꽂아 놓았었는데 이모든 것들을 정리 하였다. 15"x15"x15" 상자에 넣어서 무려 15 박스를 Recycle bin 에 버렸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 권사가 강남 중학교 와 수도여중에 미술선생으로 일하면서 국전에 냈던 대작들(크기가 대문짝 2배) 이었는데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U-Hall 를 빌려서 실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운반하였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니까 우리 거라지 운동장 ? 이 된 듯 싶었다.

아들은 취미가 나와 다르다 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나는 Home theater 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극장의 sound 와 입체감을 만들 가능을 늘 생각 했었는데 아들은 가정극장은 안중에 없고 truck 과 camping 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기 트럭에 이것저것 붙여 놓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라구요. 한국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온갖 것들을 다 장착 해 놓은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그가 무었을 해 놓았는지 잠깐 추려서 설명하려고 한다. 아들은 Auto trade show 가 Kansas city 근방에서 있으면 블려 다니느라고 좀 바쁘다고 한다. 여러 가지 gadget들을 설치 해준 업자들이 아들 truck 을 그 쪽에 가지고 와서 선보이라는 청을 한다고 한다. 차 Top 에는 40" light bar 가 있는데 light intensity 가 무려 15,000 lumen 이 되는 LED lamp 가 있고 차 앞에는 30" light bar 가 12,000 lumen lamp , front bottom 에는 6000 lumen fog lamp 가 있다. Loadlifter 5000짜리, 90 PSI twin air compressor with 10 gallon on board air , 그리고 Extra battery bank 를 더 장착해서 운전 할 때는 battery 를 항상 charge 시킨다고 한다. Camping 갈 때는 Trailer 을 끌고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CB antenna 와 CB set 도 가지고 있다.

우리 권사가 겪는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분들이 오면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했다. “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 몇 차례 사고를 당했으므로 해서 독백처럼 나오는 말이다. “ 여보, 자책하지 말아요. 사고인데 왜 그래 ” 하고 싶었지만 정작 말은 못했다. 아마도 신경이 날카로울 텐데 더 군소리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받은 모든 사랑과 위로들을 전부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요. 허나 우리들의 고마움은 두고두고 잊지 않고 간직하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incere love !!! We are very happy .

<연합시론> 北, 도발 위협 멈추고 대화 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개성 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 제의는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추구해왔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변화다.

불과 며칠 전 민주당이 대북 대화 채널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만 해도 정부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류 장관은 지난 8일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제의해도 받을지 의문이고 대화가 이뤄져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이끌 합의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력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먼저 제의하면 북한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북측에 태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가 오해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한 목소리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벌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뒤 "아무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반 총장과 나는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 호전적인 접근을 중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도 이날 런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발언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강도 높은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방으로 여겨졌던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무력 도발 위협에 찬성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북한은 언제까지 홀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핵무기로 도전할 셈인가.

북한은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북한 주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핵무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한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부세계의 지원이나 투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어렵게 내민 손을 덥석 잡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킨 다음 비핵화와 경제 건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시키고 경제를 건설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2013/04/12 16:34 송고

왕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E 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voiceofnm@gmail.com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BBVA Compass

뉴멕시코에서 은행대출이 필요하시면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스시바를 매매 합니다

Los Alamos 의 Smith 마켓 안에있는
성업중인 스시바를

타주 이사 관계로 매매합니다.

가격 6만불

연락처: 505-506 7756

Susan Oh (수잔 오)

E-mail: susanmission@gmail.com

미국에 함께 온 내 하모니카

이경화 장로

1969년 8월 여름 뉴멕시코 대학(UNM)에 대학원 유학생으로 입학되어 알버커키, 뉴멕시코 주에서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와 두 아이를 한국에 두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찌 해결해야 될지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머니에는 미화 145불을 지참금으로 의지하고 미국에 온 것이다. 손에 들고 온 두 개의 가방 속에는 독일에서 구입했던 호너(Hohner) 클로마틱 하모니카와 일제 야마하(Yamaha) 복음 하모니카도 떨려서 나와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등록금도 없으니 입학 수속과 등록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직장 구하기 쉽다는 캘리포니아 LA로나 같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 왔다. 전기공학과 사무실에서 등록금 면제가 되었으니 입학 수속을 서둘러 하라는 전화였다. 영어도 서툰 나에게 학부 학생들의 실험실 조교로 나를 채용해 주면서 등록금 면제와 생활비를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두 학기를 마치고 나니 여름방학 때는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다소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한국에 두고 온 두 아이와 처를 데려올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르치며, 공부하며, 가족과 함께 바쁘게 살아가는 유학생 생활에서 하모니카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매년 한번은 꼭 하모니카를 불어야 될 일은 생겼다. 다음 아닌 대학 교내 행사로 열리는 International Festival 때문이었다. UNM 외국 학생들의 중요 행사로 매년 4월 중순에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학생회관 볼룸에서 열렸다. 한국 유학생은 고작 10명 내외였던 작은 그룹이었지만 한국을 미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투철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이 페스티벌 행사에는 매년 참여했다. 우리들은 없는 재주를 짜면서 득창, 합창에다가 나의 하모니카 솔로를 넣어서 무대공연을 준비했고 LA영사관에 부탁해서 한국소개 책자와 포스터를 얻어오고 한국인 가정은 극히 드물었지만 한두 가정에 부탁해서 한국 공예품, 자기상 같은 것을 빌려와서 전시장을 만들고 간단한 다과와 만두와 계피차를 준비해서 음식 매상을 올리는 일을 했다. 그 당시에 태권도 도장이 알버커키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태권도장과 교섭을 해서 초청 시범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어떤 한해는 소코로에 있는 뉴멕시코 공과대학에도 원정을 가서 한국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국의 밤” 행사를 치루기도 했다. 나의 하모니카 연주는 한국 민요 외에도 미국민요 “오 수잔나”와 스페인 민요 “라 파로마”를 자주 불었다. “오 수잔나”를 부르면 관중들은 예외 없이 함께 박수를 치며 즐거워 하는것을 알게 되어 이 곡은 행사때마다 나의 18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UNM 대학원 졸업을 5개월 정도 앞둔 1975년 여름 어느 날 알버커키저널 신문에 전기회로 설계 엔지니어를 구한다는 어느 회사의 모집광고를 보게 되었다.



사진1:UNM 학생회관- 매년 봄에 열리는 International Festival에서 한국 소개전(1971년)

Gulton Data System이란 낯선 회사 이름이었지만 제품이 주로 우주항공, 미사일 등에 응용 된다고 소개된 것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졸업 후 귀국하거나 캐나다로 가서 조금이라도 직장 경험을 쌓고 귀국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직장 구한다는 계획은 아예 접어둔 상태였으나 알버커키 신문에 난 광고이니 한번 가서 학생 비자로 있는 나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알아보자 하는 생각에 그 당시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Central Ave.의 동쪽 끝 Tijeras Canyon 입구에 있는 회사로 찾아갔다. 회사 정문 현관을 들어서니 안내 직원이 앉아 있었다. 신문광고를 보고 왔는데 나는 한국 유학생이라서 법적으로는 취직 할 수 없지만 이 회사에서 설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찾아 왔노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직원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가라고 했다. 이름, 주소와 UNM 대학교 내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10분도 채 안되어 전화가 걸려 왔다. 방금 다녀온 걸튼 회사의 인사과장이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면접을 위해 와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것였다. 이력서도 한 장 준비해서 들고 오라고 했다. 다음 날 인사과로 찾아갔더니 곧 기술과장 엔지니어 방으로 안내되어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기술과장은 Richard Reiff라는 분인데 이력서에 써 놓은 교육과 경력 분야는 슬쩍 훑어보기만 하고는 취미분야가 더 관심 있다는 듯이 취미에 관한 질문을 시작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어떤 음악인가요? 좋아하는 작곡가는 누구인가요? 무슨 악기라도 연주 할 줄 아는 것이 없나요? 앞의 질문에는 대답을 잘했는데 악기 질문에 가서는 더듬거렸다. 하모니카를 악기로 인정 할 수는 없는데 하모니카 얘기를 하나마나 하다가 내친김에 “악기는 못해도 작난감 하나는 좀 합니다. 하모니카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는 Reiff씨는 눈이 동그라지면서 “나도 옛날에는 하모니카를 아주 열심히 불었었는데 아! 취미가 우리 서로 같았군요!” 하는 것 이었다. 학생시절에 그분은 그의 동생과 함께 아파트에 딸린 세탁실에 가서 하모니카를 불었는데 세탁실 벽이 콘크리트 벽이어서 소리 울림이 아주 좋아 늘 그곳에서 하모니카를 신나게 불었다는 등의 얘기를 했고 그 후에는 기타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나는 한국에서 하모니카 합주단에 있는 일과 독일 베를린 방송국에서 하모니카를 불었던 에피소드 등을 얘기 했다. 기술적인 얘기는 제쳐 놓고

음악과 하모니카 얘기로만 30여분 나눈 뒤에 그분은 나를 데리고 회사 안을 구경시켜주면서 다른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을 소개해주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사 결정을 이분은 내린 것 이었다. 이민법등 절차상 문제로 입사 되었다는 말만 못한 것이었지 인터뷰는 끝난 것이었다. 내 하모니카는 미국에서의 첫 취직 인터뷰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매자 노릇을 해주었다. 이 회사 인사과에서는 이민국에 연락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발급과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며칠 내에 마치게 되었고 일주일 뒤에 나는 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가을 학기 실험실 조교와 장학금은 사절하고 논문 마무리는 집에서 준비해도 된다는 양해를 얻고 졸업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회사에서 2-3년 경험 쌓고 한국으로 귀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취직 한 이 회사가 내 나이 65세가 되도록 평생을 일하게 되는 회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미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주어진 첫 번째 설계과제는 미사일 같은 항공 물체가 대기권으로 재돌입해 들어 올 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측정해서 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해주는 장비 설계의 한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프로젝트는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사일에 탑재되는 측정 장비설계였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하모니카는 내 취미생활에서 완전히 잊어지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이파금씩 나가든 미국교회 마저 점점 뜯해지고 신앙생활은 긴 동면에 들어갔다.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하자 이곳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게 되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시에 세 개의 연구소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칼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있는 JPL과 뉴멕시코주 Los Alamos의 국립연구소, 뉴저지 주에 있는 Bell 연구소 세 곳에서 동시에 오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뉴저지 홈델(HolmdeI)에 있는 벨연구소를 택하고 10년 넘게 정든 이곳을 떠났다. 이사를 간지 얼마 안 되어 연구소에서 알게된 후배 엔지니어의 권유로 만모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동찬 목사님의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고 잊었던 신앙생활을 되 찾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인지 내 정신이 나간 탓인지 몰라도 세례 받고 한 달도 안 되어 나는 알버커키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해 버린 것이다. 부사장이 끈질기게 다시 오라고 해도 무시해오든 내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꺼낸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에서 알버커키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려 버린 것이다. 일 년 반만에 이곳에 다시 왔을 때 지금의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는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 되었다. 교회생활에 게을러진 나를 하나님께서 뉴저지 주로 보내어 세례를 받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다시 이곳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

셋방살이 하든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 미국인 교회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필수적인 여건에서 “한국의 밤” 행사는 자연스런 발상이 되었다. 독일에서 해본 한국의 밤 행사와 UNM대학교에서 여러 번 해본 International Festival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세 지고 있는 St. Pauls UMC 교회 교인들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350여명의 미국교회 전 교인의 식사 대접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맡아서 하고 성가대는 한국 노래와 춤을 준비했고, 태권도 시범은 도장을 운영하시던 김홍철 사범께 부탁드려서 프로그램을 짜다보면 내 하모니카도 한, 두곡은 맡아야 되었다. 교회에서 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자신이 생겨서 교회 밖의 지역 사회로 나가 알버커키시에서 하는 Summerfest에 Korean Night 한인회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자 여기서도 하모니카를 여러 번 불었다. 그러나 Summerfest 행사 규정이 1990년대 중반에 와서 많이 변경되어 한인회 참여가 어렵게 되자 내 하모니카를 부는 기회도 없어졌고 나의 하모니카는 다시 잊어진 존재가 되었다.



사진 2: 1987년 알버커키시 프라자에서 열린 뉴멕시코 한인회 주최 “Summerfest-Korean Night”에서 하모니카로 한국민요를 소개하는 필자. 하모니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퇴직한 이후가 된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잠자던 내 취미도 좀 살려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늘 생각만 하면서도 미루어 왔던 하모니카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합주용 하모니카도 구입했다. 처음 영역에 속하는 Alto Single은 첼로 음역에 속하는데 합주용으로 필수인 하모니카이다. 코드만을 부는 하모니카도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Suzuki Ensemble을 구입했다. 독주용으로 Hohner와 Suzuki에서 내 놓은 Chromatic 하모니카를 여러 장조에 맞춰 구입했고 끝으로 중요한 것 하나인 컴퓨터 Software로서 Audition2.0를 구입했다. Audition 프로그램은 녹음된 음악을 합성시키고 편집하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 이를 이용해서 일인 합주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제일 먼저 노래의 소프라노 또는 멜로디 부분을 녹음해 넣고 나서는 이를 재생 Play 시켜서 들으면서 두 번째 alto 파트 또는 제2 바이올린이나 첼로 파트의 연주를 해서 녹음을 추가 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면 일인 3중주, 4중주로 확대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한사람의 연주이지만 두, 세 개의 파트가 같이 연주되어 음악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2중주 3중주 녹음을 하고 혼자서 들어보는 재미를 붙이고 있던 중 하모니카 취미 활동

10.....

에 더 큰 변화가 왔다. 2007년 가을 인터넷의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동영상은 무료로 업로드, 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www.youtube.com 사이트가 창립한 것은 2005년이었고 2006년 구글(Google)에서 16억5천만 불을 주고 인수한 후 폭발적으로 보급되어 가고 있던 2007년 가을에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르면서 khlnm이란 사용자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하고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노래 전용 채널을 위해 khlusa란 이름으로도 채널을 열었다. 컴퓨터를 살 때 함께 딸아 오는 Window Movie Maker를 써서 사진을 연속으로 붙인 다음 녹음해서 만든 오디오를 넣으니 슬라이드 쇼 같은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올리면 한 두 시간 작업의 결과로 하모니카 노래가 유튜브에 뜨는 것은 참 신기했다. 인터넷에 올려 놓고 나면 한, 두 시간도 안 되어 방문자 수 카운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 작은 규모이지만 전 세계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해서 내 하모니카는 컴퓨터의 오디오 합성 작업과 유튜브의 동영상 올리는 작업과 연합으로 이루지는 새로운 취미 활동에 몰입하게 되었다.

유튜브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자료 서비스를 통해서 업로드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문자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서 유튜브 사용자의 동태라든지 현황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통계자료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려고 한다. 제일 중요한 통계자료는 방문자 수이다. 나의 하모니카 노래 중에서 방문자수가 높은 노래는 주로 미국 민요가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올린 노래가 "Shenandoah" 이었고 이어서 "Oh! Susanna", "Red River Valley"를 올렸다. 이상의 세곡은 방문자 수가 지금에 이르도록 가장 높은 1,2,3위를 오가고 있다. "Red River Valley"는 5년 동안의 방문자 수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총 방문자 수는 22만 명을 넘었다. 이 노래의 배경 사진은 아리조나주의 캐년 디しゃ이(Canyon de Chelly) 내셔널 모뉴먼트에서 찍은 붉은 계곡의 사진을 이용했다. 어린이를 위한 동요도 몇 곡 올렸는데 "고향의 봄", "오빠 생각", 프로코피에프의 "Peter and Wolf", 독일 동요로 "내 모자 세모났네!" 등이다. "내 모자 세모났네 (My Hat, It has Three Corners)." 노래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영국, 독일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연령층을 보면 13살에서 17살대의 어린이 방문객이 가장 많은 노래가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노래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다수인데 이 노래만은 여자 방문자가 53%로 과반수가 되고 있다. "고향의 봄"은 방문자가 지난 3-4년 동안 저조했는데 2012년부터 급증해서 이제는 나의 하모니카 여러곡 중에서 랭킹 5위로 올라갔다. 방문객의 100%가 한국인 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라별 통계를 보면 한국이 78% 미국이 14% 그다음 일본을 위시해서 24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전 세계에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듯 했다.

찬송가도 10곡을 올렸는데 가장 방문자가 많은 곡은 "Amazing Grace(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9만 명을 넘었다. 이상한 점 한 가지는 나라별 통계에서 볼 때 미국이 일위고 두 번째가 일본! 한국은 6위에 머문 것이다. 기독교인이 많은 한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일본이 2위에 올라간 노래는 이 노래뿐이다. 남녀의 대비도 이상하다. 일본의 경우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은 96%가 남자였다. 여자 방문자가 아무리 적어도 남자의 1/3은 구성되는 것이 공통된 사실인데 이 노래만은 일본에서 이상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왜 일본 남자들 만이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 하는지? 일본 남자들에게 특수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 옛날 회사 친구였던 Reiff씨의 기타 반주로 녹음한 노래가 다섯 곡이 있는데 뉴멕시코 출신 존덴버의 노래 "Annie's Song"이 가장 방문자가 많아서 약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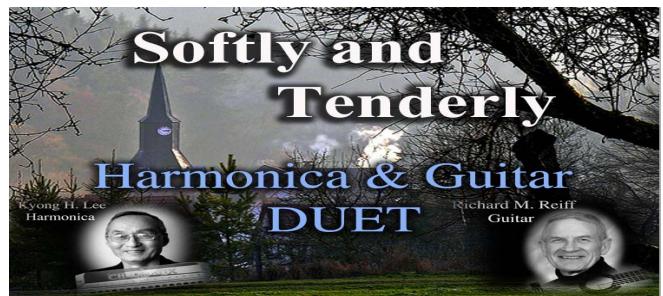


사진3: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하모니카 기타 이중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표지.

고전음악은 그다지 방문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내 취미에는 가장 잘 맞는 분야가 된다. 방문자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는 브람스의 자장가(8만3천명), 박영숙 집사님 그림을 배경으로 올린 "예수 나의 기쁨 (Jesu, Joy of Man's Desiring)"(3만 9천명)과 이 유신 집사님이 사진과목을 공부 할 때 찍은 흑백사진을 배경으로 한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3만6천명)가 있고 김수영 권사님의 꽃 그림배경으로 된 "Minuet in G"도 만단위로 가 있다. 나의 야심작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악장 주제곡,(방문자:4만3천명)과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 "저 하늘이 주의 영광 말 한다"(방문자:2만명) 등이 있다.

유튜브를 이용하다보면 하모니카 애호가끼리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어 다른 사람의 연주를 많이 듣고 배우는 기회도 갖게 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생겨난다. 네델란드에 있는 크리스라고 하는 친구는 유튜브 친구중의 한사람인데 하모니카 시작할 때부터 내 조언을 받아 하모니카를 시작했고 부는 요령을 이메일로 수차 질문하고 응답해 주고 하면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프로같이 연주를 잘해서 방문자수가 상당히 높은 지위로 올라갔다. 그가 베토벤의 "Ode to Joy"(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연주해서 올린 것을 나는 내 컴퓨터로 다운 받은 후 내 하모니카로 알토 파트를 연주해서 이중주 노래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

다. 미국과 네델란드에 떨어진 곳에 사는 두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듀엣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래의 배경 그림으로 사진을 쓰다 보니 사진작가 친구도 생긴다. 내가 가장 많이 아용한 사진은 독일에 있는 Linda Hofman이란 분의 사진이다.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사진을 취미로 삼아 독일 튜링겐 지역 시골 풍경을 Yahoo의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플리커(Flickr)에 많이 올려 놓으신 분인데 내 하모니카 동영상에 그분의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올린 노래도 아주 좋아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는 인터넷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이분의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모찰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주제곡을 하모니카로 분 것이 있는데 미국 어느 곳에 있는 의사에서 유튜브에 올린 이 동영상 클립을 장례식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유족의 요청이 있다고 사용허가를 요청해 왔다. 토마스 하디의 소설 "The Return of the Native"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흑백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배경음악으로 나의 하모니카 노래 3곡을 사용해도 좋으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영국에 있는 Wesley Music이라고 하는 음악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덴마크 왕자의 행진" 이란 나의 하모니카 곡을 장례식에 동영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유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용 허가를 또 문의해 왔다. "내 하모니카 연주를 들어주는 것부터가 내게는 영광입니다"라고 부탁 받을 때마다 답했다.

지금까지 70개의 하모니카 곡을 유튜브에 올려 놓았는데 현재 매일 방문자 수는 600명 내외이고 지난 5년 동안의 총 방문자 수는 4월1일 현재 18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내에 2백만을 돌파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유튜브에 올린 하모니카 음악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여러 방문자에게 작난감 같은 하모니카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노래를 통해서 마음에 평화를 잠시 나마 갖게 할 수 있다면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새 노래를 연주해서 올릴 계획이다. 교회 생활과 함께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온 내 하모니카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뚜렷하게 있었음을 노년이 되어서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모니카와 교회는 늘 나와 함께 동행 하는 관계에 있을 것을 굳게 믿는다.(필자의 하모니카 연주는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khlnm과 www.youtube.com/khlusa에서 들어 볼수 있다)



사진 4: YouTube에 올린 하모니카 연주- 박영숙 집사님의 유화를 배경으로 하여 바하 작곡의 "예수, 나의 기쁨(Jesu, Joy of Man's Desiring)"을 올린 표지 그림이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10:00pm on Friday & Saturday

[원로에게 듣는다]

김길남 국제한민족재단 이사장

"거주 지역별로 다른 동포정책 필요"

- 지난 10년 동안 재외동포사회는 진전이 있었다?

우리 재외동포 역사가 러시아를 기준으로 하면 150년이 넘어가고, 미주를 중심으로 하면 110년이 됐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만들어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오로지 김영삼 정부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해외동포청, 또는 교민청 설립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해외동포청 대신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복수국적 허용 대신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상태이며, 대표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

재외동포재단법에는 재외동포를 혈통주의로 정의해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재외동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주 지역별 차이를 인정해 국적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적을 소지한 자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국적을 소지했던 사람의 존비속을 재외동포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두 법률의 차이로 인한 모순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잘못된 것이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2003년도 전환기적 상황인 10년 전 <재외동포신문>이 최초로 창간돼 700만 각국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 전반의 문제를 실현하도록 동포들의 목소리를 한국 정치권과 정부 기관 당국에 전달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참으로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I Sushi
6001 San Mateo NE

SHOGUN
JAPANESE RESTAURANT
3310 Central Ave SE

12.....

그리고 <재외동포신문>이 창간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재외동포사회는 100년 동안의 재외동포社会의 발전과 변화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변화했다. 그 이유는 첫째 재외동포의 인적자원의 연대, 둘째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고 민족공동체에 머물던 재외동포사회가 2005년 협법재판소 위헌판결 의해 역사적인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이 이뤄지면서 재외동포가 국민공동체로 태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지난 10년은 근대 재외동포사에서 역사적 견변기였고 성장기였다.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재외동포신문>은 동포사회에 이주지역 환경과 이주 동기가 다른 동포사회 전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본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이 대선 직전에 내놓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양당의 복수국적 문제를 살펴보면 허용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출 것인가. 아니면 특정 나이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정도로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병역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내용 중 재외국민 병역을 재외공관 공익요원으로 활용하자는 대체복무제 제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이고 괄목할만한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사관과 영사관마다 민원과 관련해 불친절하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현지 언어가 능한 이들에게 대사관에서 복무하며 업무를 배우도록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병역문제는 새누리당이 시큰둥해 이번에 양당이 합의된 것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것 같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피부로 느끼는 감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동포정책 중 복수국적자의 국내 주민등록 문제이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국내 주민등록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반해 수십 년 동안 국적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없어서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완전 외국인으로서 움직여야 한다.

이들은 외국인 대접을 받으며 5년마다 번호가 바뀌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고, 은행업무 등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만 35세 이상으로 병역문제가 걸리지 않는 사람은 양국 국적을 갖고 여권을 양쪽 다 사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모두가 아는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를 정치권과 외교부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참정권 보다는 일본의 지방 참정권에 더욱 관심을 갖는 민단 사람들이 여론 주도층을 형성해 이들의 목소리에 재외동포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해외에 가서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돌아와 정책화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재외국민선거만 해도 여론을 주도하는 소수 주도층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게 반영돼 현실보다 과대포장이 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이 최초로 대선에서 내세운 재외동포정책을 실천하겠다는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고 나선 것은 무척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본다.

- 향후 10년, 재외동포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정부에서 서로 입장과 상황이 다른 전체 재외동포를 일률적으로 묶어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재외동포정책은 일본교포와 중국동포, 미주동포, 아·중동동포 등 재외동포 거주국과 이주 동기별로 다른 관심사와 상황을 감안하는 내용으로 정책이 각각 달라야 한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동포정책이 될 수 있다. 현실 상황에 맞지도 않은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잣대로 거주국내의 상황과 여건이 다른 동포사회의 문제를 획일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고민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동포재단이 설립되면 재외동포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키로 약속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재외동포 전체의 권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는 재단의 권한이 약하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동포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동포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

지난 10년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지역별로 메인 이슈를 분할해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중동지역의 경우, 재외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놓였을 때 현지 외교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아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보호법과 관련한 문제를 <재외동포신문>이 짚어주어야 한다.

또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신문>이 한국정부의 차별정책을 지적하고 그들과 공통의 관심사인 한국문화를 가지고 다가가는 등 지역별, 국가별 포커스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재외동포재단이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라든지, 재외동포재단의 난맥상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동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 한인사회가 전환점이자 기로에 서 있다. 한인회가 온통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한인회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재외동포신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10년을 나아갔으면 한다.

● 현 국제한민족연구재단 이사장

목요산악회

SANDIA 산을 오르는 사람들

최원길 박사

지난 이틀간 내린 비로 Sandia 산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오늘 산행은 훨씬 재미있었다.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나눈 후 9시경에 목사님을 포함 우리 4명이 Sandia 산의 중턱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La Luz Trail을 따라 산행을 시작했다. 오늘로 2번째 오르는 것이다. 알버커키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이 Sandia 산을 좋아하고 이 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보고 느끼는 감격은 가본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La Luz Trail은 전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곳으로 매년 8월이면 전국의 Hiker들이 모여 경주를 하는 곳이다. 참가 인원이 4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매년 500 - 600명의 지원자 있어 추첨을 통해서 참가자 400명을 선택한다.



La Luz Trail을 찾아가려면 먼저 I-25에서 Tramway로 나와 Sandia Casino를 지나 동쪽으로 3마일쯤 가면 산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나온다. 길 이름은 없고 NF333이라는 표지이 있는데 National Forest 333번이라는 뜻이란다. 그 길을 따라 2마일쯤 가면 왼쪽에 돌로 쌓아놓은 기둥 문이 보이고 그 사이를 지나 0.3마일을 더 올라가면 La Luz Trailhead가 나오며 Parking장이 있다. 이곳은 National Forest의 관할이며 입장료 \$3.00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곧 switchback(지그재그로된 길)이 시작되기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2마일을 올라가면 Chimney Canyon(알버커키에서 보면 굴뚝같이 보인다고 해서 Chimney 계곡이라고 부른다)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경치가 나타난다. 이 계곡을 지나서 다른 산등성이로 가는 중에 3마일이라고 쓴 풋말이 나오고 그 등성이에 올라서면 남쪽 아래로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La Cueva Canyon이 내려다 보인다. 여기서 두 길이 갈라지는데 왼쪽은 등성이로 계속 올라가는 정식 길이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면 La Cueva Canyon으로 들어가서 그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올라 가는 길이 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곳에는 Aspen나무로 덮여있어 사계절에 따라 경치가

달라진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고, 봄에는 온갖 새 생명(풀)들이 경쟁이나 하듯 솟아나오고, 여름엔 파란 들이 되어 초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Aspen의 단풍이 매우 아름답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식 trail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5마일 되는 곳이다. 고도는 8600ft 정도이니 Trailhead인 파킹장이 6600ft이기에 거의 2000ft를 올라(gain)온 셈이다. 여기서 La Cueva Canyon을 지나 동쪽 산등성이를 switchback으로 2마일을 올라가면 Sandia 산등성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Crest trail을 만나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1.8마일을 내려가면 Tram(케이블카) 정거장과 High Finance Restaurant이 나온다. 반대로 북쪽인 원쪽으로 0.7마일을 올라가면 Antenna가 보이는 정상(10675ft) 쪽으로 가게 된다. 거기에는 coffee & gift shop이 있으며 Sandia 산 뒤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산행은 눈을 밟을 수 있는 특별한 산행이었다. 지난주에 보던 파릇파릇하던 새싹들이 혹시 눈 속에서 얼어 죽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그래도 지난주와는 다른 눈 덮인 자연 속을 걸으니 몹시 즐거웠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가운데에서도 산행 예찬을 자기 나름의 경험과 철학으로 서로 들어놓기도 했다. 특히 산행이 주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으로는 이 산행을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목요 산악회”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 목요산악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9시에 La Luz 트레일 파킹장에 모여서 출발한다. 많은 참석을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은 Cell (858) 248-1704 Email: w.gil.choi@gmail.com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의 민화(民畫)

우리 민화는 민족문화의 여러 모습을 폭넓게 묘사했으며, 그 중에도 생활철학과 생활감정을 그림 속에서 구체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 속에 정착하고 존속해 왔다. 이 속에는 기원과 위안으로, 또는 보는 즐거움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민화는 민족의 창의성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고, 생활감정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화는 풍속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거나, 궁중회화(궁화)나 문인화(사인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회화 장르로 폄하되어왔다. 그 동안 한국미술사 연구도 궁중회화와 문인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게 사실이며, 민화는 오랫동안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민화(民畫)는 과거에 실용(생활공간의 장식이나 민속적인 관습에 따름)을 목적으로 무명인에 의하여 그려졌던 대중적인 실용화를 말하는데 그 기원은 선사시대 암각화(岩刻畫)에서 물고기·거북·사슴·호랑이 등에서 민화의 원초적인 화맥(畫脈)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벽화의 사신도(四神圖)·신선도, 백제 산수문전(山水文傳)의 산수도, 등은 민화적 소재이며, 특히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처용의 화상을 문설주에 붙이면 역신(疫神)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벽사(辟邪)를 위한 그림을 대문에 붙였던 풍습은 조선 말기까지도 별성마다 그림 등을 붙이던 풍습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에 보이는 세화(歲畫)와 도화서 화원들의 그림에 대한 기록을 볼 때 민화는 우리 민족과 함께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민화의 기능과 역할은 그것이 필요로 했던 시대의 생활과 연관시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민화는 회화이면서 전통회화에 비해 생활미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민화의 소재들은 순수감상을 위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의 기복축사(祈福逐邪), 벽사진경(辟邪進慶),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같은 기원이나 소망, 그리고 민간신앙이나 종교적인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효(孝), 제(悌), 충(忠), 신(新), 예(禮), 의(義), 염(廉), 치(恥)의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도

를 보면 일상생활의 도덕이나 윤리규범이 담겨있고, 책거리 그림에는 학문존승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문자도는 당시 서민대중을 유교적 도덕관으로 교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민화는 우리 선조들의 꿈과 사랑, 도덕과 윤리, 신앙과 종교, 학문존승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민화가 지니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장식의 역할이다.

민화는 대개 화려한 채색과 뛰어난 장식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산수, 인물, 영모, 화조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 중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민화의 절대 다수의 화조화로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민화의 장식적 기능이 대단히 컸다.

- 민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정통회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서 정통회화의 특징과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약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민화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지니고 있던 천진성이나 해학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표현방법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순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민화에서는 비단 단순성만이 아니라 주제나 내용, 표현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집합적으로 볼 때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회화는 유교사상이나 유교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수묵 담채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해 서민 대중사이에서 유행한 그림, 또는 궁중의 인습적 그림에서는 강한 채색을 지니고 있어서 큰 대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회화에서는 채색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강한 채색 중에서도 산수화에서는 청록산수의 전통이 강하게 전해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고 모란꽃 그림 같은 데에서는 밝고 선명한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정통회화의 화조화에 비해 대단히 장식성이 강하고 강렬한 한국적 특성을 꾸밈없이 나타낸다는 점이 주목된다. 민화의 색채는 우리의 색채감각이나 미의식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 민화는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통회화 이상으로 한국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

정통회화가 교육받은 사람의 세련된 말씨에 비유될 수 있다면 민화는 순박한 농부의 투박한 말씨에 비유될 수 있을 듯하다. 논리정연하거나 조리 있는 않지만 농부가 불쑥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생활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진리가 사자성어진솔하게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민화는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적 특성을 가식없이 드러내 준다.

또한 민화는 서민대중의 생활과 염원을 드러내고 문화적 성격과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화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당시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심장에는 로마의 피가 흐른다”

‘미국문화 500년 로마를 훔치다’

▲ 미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책이 나왔다. 출판사 ‘로마의 꿈’ 최용식(47) 사장이 최근 펴낸 ‘미국문화 500년 로마를 훔치다’이다. 이 책은 미국이 로마를 벤치마킹했다고 주장한다. 최 사장은 “조지 워싱턴 등 미국의 건국 시조들은 로마 공화정의 정치적·사회적 가치들을 모방하면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며 “미국의 심장에는 로마의 피가 흐른다”고 주장했다. 역사상 가장 늦게 출현한 강대국이 2000여년 전의 로마 공화정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로마를 둘 모델로 채택한 이유가 뭘까? 그는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영국 이외 국가에서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서양국가들이 송상하는 로마는 이런 점에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대 미국의 정치구조가 로마 공화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미국의 국가체제는 연방주의·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의 3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점이 로마 공화정과 닮은꼴이다. “로마의 집정관은 대통령, 원로원은 상원, 민회(民會)는 하원에 대입됩니다. 민회가 간접적으로 집정관을 선출하는 방식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대통령에게 독재관과 같은 권력을 주고 임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뿐입니다. 로마의 원로원(Senatus)과 미국의 상원(Senate)은 명칭과 역할이 거의 같습니다.”

그는 “미국의 연방주의도 로마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로마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 방식으로 통치됐습니다. 오늘날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된 미국의 연방제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미국의 시민권 제도는 로마의 시민권 제도를 본뜬 것입니다.”

건축양식에도 로마의 영향은 크다. 그는 “수도 워싱턴은 독립 후 고대도시 로마를 의식적으로 모방해 설계했습니다. 워싱턴에는 고대 로마 스타일의 신전이나 공공건축물, 일반 건물들이 넘쳐납니다. 국회의사당, 제페스기념관, 링컨기념관, 연방대법원 등 수십 개의 관공서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고대 로마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남부의 농장 지대나 찰스턴 해안가에는 로마 스타일의 높은 기둥과 상층부 회랑을 가진 저택들이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로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점도 닮았다. 그는 “미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단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로마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4대 스포츠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종목인 아메리칸풋볼은 로마시대의 검투사들의 목숨을 건 결투처럼 자극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풋볼 경기장은 하버드대학에 있는 하버드 스타디움인데 이 경기장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그대로 본떠 1903년에 만든 것입니다.”

로마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군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미국도 비슷하다. 역대 44명의 대통령 가운데 12명이 육군 장군이나 해군 제독 출신이다. “미국의 민병대 전통은 고대 로마처럼 전제군주로부터 자유로운 공화정을 갈망했던 식민지의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인 천주교 공동체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 월요일: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 <http://cafe.daum.net/abq-catholic>

뉴멕시코 성경교회

전종절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이준우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장소: 525 N Madrid Suite#2, Las Cruces, NM 88011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

§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화밍튼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5:45 am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331-9584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 시간:

§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사자성어 뜻풀이

苛斂誅求	가렴주구	세금을 너무 거두어 들이고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일
佳人薄命	가인박명	여자의 얼굴이 너무 빼어나면 삶이 순탄하지 않다
刻骨難忘	각골난망	은덕을 입어 고마운 마음이 뻣속 까지 스며 잊히지 않는다
刻骨痛恨	각골통한	뼈에 사무치도록 마음속 깊이 맷힌 원한
各自圖生	각자도생	제각기 살아 나갈 길을 피한다
角者無齒	각자무치	한 사람이 모든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
甘言利說	감언이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달콤하고 이로운 말
甘吞苦吐	감탄고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싫으면 내뱉는다
改過遷善	개과천선	지난 나쁜 잘못을 바르게 고쳐서 착하게 된다
蓋棺事定	개관사정	죽은 뒤에야 사람의 참다운 평가가 내려진다
去頭截尾	거두절미	앞뒤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乾坤一擲	건곤일척	단판으로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
見蚊拔劍	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든다
見物生心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結者解之	결자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結草報恩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다
輕舉妄動	경거망동	함부로 가볍게 하는 짓
傾國之色	경국지색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
敬而遠之	경이원지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한다
驚惶罔措	경황망조	놀라고 두려워 어쩔 바를 모른다
鷄卵有骨	계란유골	달걀에도 뼈가 있다.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된다
孤掌難鳴	고장난명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혼자 일을 해내기 어렵다
苦盡甘來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孤枕短命	고침단명	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못 산다
骨肉相殘	골육상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일
功過相半	공과상반	공로와 과실이 반반
公明正大	공명정대	일이나 하는 짓이 옳고 바르다
空中樓閣	공중누각	공중에 뜬 집처럼 터무니 없음
過恭非禮	과공비례	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에 벗어난다
過猶不及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뜻하는 바에 이르지 못한다

管鮑之交	관포지교	관종과 포숙의 우정처럼 아주 친한 친구 사이
刮目相對	괄목상대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무엇이 대단히 발전하였다
矯角殺牛	교각살우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 작은 일에 힘쓰다가 큰일을 망친다
巧言令色	교언영색	남에게 아첨하려고 듣기 좋게 꾸미는 말과 얼굴빛
口尚乳臭	구상유취	입에서 젖내가 난다. 유치함
群鷄一鶴	군계일학	닭의 무리에 한 마리 학. 변변치 못한 여러 가운데 홀로 뛰어남
群雄割據	군웅할거	여러 영웅이 세력을 얻기 위해 겨루고 있다
權不十年	권불십년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
勸善懲惡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벌해야 한다
捲土重來	권토중래	한 번 패한 것에 굴하지 않고 힘을 길러 다시 쳐들어 온다
近墨者黑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면 손이 검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쁘게 된다
金科玉條	금과옥조	금이나 옥같이
表裏不同	표리부동	마음이 음충하여 결과 속이 다름

축 개업

SALON123
Family Haircare



Color highlighting, multi-dimensional weaves and 100% color collection extension
Deep conditioning treatment with hair and scalp
Permanent waving, and relaxing

7114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0
Cell: 505-550-3069
Shop: 505-872-0301

ASIA MARKET
아시아 마켓

6207 Montgomery Blvd NE
(NE corner of
Montgomery & San Pedro)
(505) 503-7685
(Old Dinho Market - One of the oldest Asian Markets in Albuquerque)

Grand Opening
Hours: Mon-Sat 10-7 Sun 11-5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Mon-Sat
10:00~6:00
Sunday
close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참 지혜

신으로부터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당장 첫 소원을 말했다.

"저를 미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날부터 그이 앞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났다. 그를 보기만 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는 미인들. 그들은 넋을 놓고 그를 따라 다녔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미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아 날로 과김치가 되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신께 두번째 청을 넣고 말았다. "저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는 저들의 사랑 공세에 지쳤나이다." 그의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그에게 소원을 풀 기회란 딱 한번 밖에 없었다.

그는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사람을 마구 부릴 수 있는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할 것인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것인가. 그외에도 많고 많은 소원이 그의 머리 속을 어지럽혔다.

이것을 청하자니 저것이 놓치기 싫고 저것을 청하자니 이것이 놓치기 싫고 그는 이 일로 신경쇠약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한가지 남은 것을 신의 답을 구하는 것으로 쓰고 말았다. "부디 제가 무엇을 청했어야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소서." 신은 말했다. "내가 너라면 첫째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능력을 크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솔로몬처럼 귀담아 듣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세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때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주여,

우둔한 저에게는 그러나 이제 기회가 없나이다."

"아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 세가지의 씨앗은 내가 진즉 너희 마음 속에다가 깊이 심어 놓았었다. 그러니 각자 노력하기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고 거둘 수 없기도 할 것이다."

- 생각하는 동화 '멀리가는 향기' 중에서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18

베트남 스프링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505.321.7695 (cell)
Albuquerque, NM 87110 505.888.1700 (office)
yongfre@yahoo.com 505.888.9650 (office fax)

하나님이시여
저를 절망케하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 보게 하시고
온갖 고난의 불꽃을 활개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옵시고
내가 스스로 지탱하여 나감을 돋지 마시고
내가 발전 하는것도 돋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그때에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 주셨다는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하나
나는 오직 당신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헤세 -